

간호교육기관 15곳 인증 획득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8년도 상반기 인증평가 결과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 인증평가가 완료됐다.

상반기 인증평가 결과 간호교육기관 15곳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김희순)이 밝혔다.

이번에 정부인정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9곳, 4년제 간호학과 운영 전문대학 5곳, 3년제 전문대학 1곳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8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획득했다.

인증기준은 6개 평가영역, 14개 부문, 2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6개 영역은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로 2주기와 동일하다.

2018년도 하반기 인증평가 신청서 접수는 7월 2일 마감됐으며,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은 9월 20일까지다.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는 10~11월 진행된다.

평가인증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간은 5년이다. 기준 조건부 인증을 없애는 대신 3년 인증(잔여기간 인증 없음)이 신설했다. 한시적 인증(1년)도 신설했으며, 이 경우 연속 2회 이상 판정은 불가하다.

정규숙 기자 ksung@koreanurse.or.kr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하라”

간협 성명서 발표 ...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해야

대한간호협회는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9월 13일 발표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9월 11일자 기사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얼굴때가 부러졌는데도 5시간 뒤에야 치료를 받았고, 그 이유가 학생의 건강상태를 돌볼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본분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

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

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일부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이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뿐 아니라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그 수에 비례해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학생 건강관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ung@

제주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 발표

자치단체 최초로 간호사 부족 직접 해결 나서

간호사 도외 유출 방지 위해 취업 지원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간호대학 졸업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비 138억 8000만원을 투입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간호인력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내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월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장은 “도내 간호사가 일한 만큼 임금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도내 간호사의 이직율이 줄고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돼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도지사 선거기간 중이던 지난 5월 9일 “매년 제주에서는 300명이 넘는 간호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도내 근무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간호사 인력의 도외 유출로 만성적인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근무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다”며 제8호 공약으로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3교대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ung@

경복대학교는 부총장에 양 수 전기톱리대 간호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양 수 부총장은 간호대학 학장을 겸직한다. 9월 3일자.

양 수 부총장은 기틀리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문항개발정리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제2부회장·감사, 정신간호사회 회장, 간호대학 간호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양 수 부총장은 “재학생 수가 많고 자체 실습병원을 갖고 있지 않아 전문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질 높은 성과기반 간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간호를 사랑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에게 역할 확대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전문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질 높은 성과기반 간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간호를 사랑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에게 역할 확대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ung@

보건교사 출신 교장 탄생 ... 송회옥 대구 덕화중 교장

보건교사 출신 교장이 탄생했다. 대구 덕화중학교 교장에 송회옥 동촌중학교 교감이 발령받았다. 9월 1일자.

이번 승진은 2013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정 교육경력 등을 갖춘 보건교사(1급, 2급)

가 교감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면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장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송회옥 교장은 1980년 안동과학대를 졸업했으며, 경북대에서 간호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구시교육청 보건장학사로 일했다. 대구 달성고등학교와 동촌중학교에서 교감을 지냈다.



올해 교장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장 자격을 취득했다. 교육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송회옥 교장은 “미래 행복여행을 가꾸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한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디딤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추석 연휴관계로 9월 27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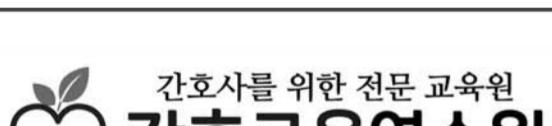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부산광역시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진료소장회	(02) 2266-7677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교사회	(02) 527-3300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22	마취간호사회	(010) 2061-6471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산입간호사회	(02) 716-9030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가정간호사회	(02) 267-5688
경기도	(031) 252-0351	군	(042) 878-4590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강원도	(030) 263-6417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천원칙을 준수합니다.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저먼트 서비스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